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18일 단독 상정된 것과 관련, 민주당 정세균 대표 등 의원들이 김형오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머에 물대포·소화기…'상생' 실종

■한나라 한미 FTA 비준안 상정

외통위, 여·야 물리적 충돌 속 단독상정 강행

한 "연내 처리" 가속도…민 "필사 저지" 나서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회의실인 본청 401호실이 18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상정 문제를 놓고 여야간 치열한 몸싸움을 벌여 난장판이 됐다.

◇아수라장이 된 민의의 전당=국회 외통위 개회 예정 시각은 이날 오후 2시. 하지만, 한나라당은 전날 자정까지 의원과 보좌진 30여명을 배치해 회의장을 지켰고 이날도 오전 6시30분께 의원 11명이 회의장에 들어온 뒤 옆에 있는 위원장실에 대기했다.

민주당은 개회를 막기 위해 이날 새벽 박진 외통위 위원장과 한나라당 간사인 황진하 의원 자택에 의원들을 급파했으나 이미 두 의원은 자택을 비운 뒤였다.

이에 오전 8시15분께 원혜영 원내대표를 필두로 의원과 당직자 150여명이 4층 회의실로 몰려갔지만 질서유지권 발동을 이유로 경위들은 문을 열지 않았다. 민주노동당도 강기갑 대표를 비롯한 의원과 당직자 10여명이 동참했지만 경위들은 요지부동이었다. 이에 민주당 당직자들은 회의장 진입을 위해 해머로 문을 내리쳤고, 집요한 시도 끝에 11시10분께 한쪽 문을 뜯어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회의장 안에 있던 경위들은 소파와 책상, 의자 등을 쌓아올려 민주당의 회의장 진입을 막았으며 민주당 측은 소화전을 끌어다 바리케이드 너머로 즉석 물대포를 쐈고, 경위들은 밖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했다.

이런 난장판 속에서 박 위원장은 오후 2시가 되자 한나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 개회를 선언한 뒤 비준동의안을 상정했다.

박 위원장은 3분 여만에 산회를 선포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경위들의 보호를 받으며 민주당 당직자들의 심한 야유 속에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뒤늦게 회의장에 들어선 원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런 일은 없었다. 원천무효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외통위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정 처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예정대로 처리되나=한나라당은 일단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물꼬를 텄다.

한나라당은 내부적으로 오는 29일 또는 30일까지 처리를 종결한다는 목표를 세워둔 것으로 전해진다.

한미 FTA 비준안은 '동의안'이므로 일반 법률안보다는 국회 처리 절차가 간소하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외통위 전체회의 상정→외통위 법안심사소위 심의·의결→외통위 전체회의 심의·의결→본회의 상정→ 본회의 표결' 등 5단계를 거치면 된다.

그러나 남은 4개의 관문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한나라당의 이날 상정 강행으로 여야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날 상정의 '원천 무효'를 선언했다. 민주당은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李 대통령 당선 1년…경제살리기 이제부터

연초 개각 통해 집권 2년차 구상 드러날 듯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제17대 대통령에 당선 1주년을 맞는다.

그러나 당선 1주년을 맞은 이 대통령의 고민은 오히려 깊어가고 있다. 48.7%의 대선 득표율과 530만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이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등에 업고 강력한 국정 드라이브를 예고했지만 쇠고기 파동과 강부자 인선, 미국발 경제 위기 등으로 집권 1년의 성적표는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5년 단임의 정치 일정상 대통령으로서 강한 추진력을 갖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사실상 내년 1년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은 내년 국정 운영을 놓고 핵심 참모들과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장, 이 대통령으로서는 싫든 좋든 늦어도 취임 1주년이 되는 내년 2월 이전에는 개각과 여권 재편 작업을 통해 집권 2년차의 새 그림을 짜야 한다.

"부처 차원의 일"이라는 청와대의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 교육과학기술부 1급 간부들의 일괄사표 제출을 계기로 잠잠하던 여권 개편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도 이런 기류와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대선 승리 1주년을 계기로 집권 2년차 구상에 본격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연초 구상을 가다듬고 기자회견 등의 형식을 통해 지난 1년에 대한 소회와 향후 각오를 밝힌 뒤 이후 개각을 통해 구체적 의지를 드러낼 것이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개각의 방향이나 폭에 대해서는 아직 백지상태이긴 하지만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은 다양하다.

현재 여권 주변에선 강력한 국정장악을 위해 이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측근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는 관측과 통합을 위해 탕평인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교차한다.

또, 청와대는 친정체제, 내각은 통합내각으로 각각 꾸릴 것이라는 절충형 분석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대선승리의 1등 공신인 이재오 전 의원이나 정종복 전 의원 등의 역할론도 제기된다.

구체적 추진 과제와 관련해선 우선 정권의 명운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경제 살리기에 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회복 없이는 안정적 국정운영은 물론 새 정부 핵심비전인 선진일류국가 달성도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경제 대통령'을 표방한 이 대통령의 개인적 신뢰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경제 살리기 조치의 일환으로 이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공기업 개혁의 차질 없는 완수와 함께 경제관련 규제개혁 작업에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법과 질서를 다시 세우고 후진국형 노사문화를 바로 잡는데도 매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새 정부 들어 회복된 한미관계를 비롯해 주변 4강(强)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동시에 경색국면에 빠진 대북관계를 개선하는 데도 전력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한, 집권 1주년 '절반의 성공' 자평

과반의석 받고도 허송세월…소통·통합 절실

집권 여당 한나라당이 19일로 대선 승리 1주년을 맞는다.

한나라당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자평했다. 이와 관련, 안경률 사무총장은 18일 "1년간 절반의 성공밖에 못한 것 같아 아쉽다"며 "새해에는 한나라당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총장은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를 내린 이유에 대해 "집권 초기부터 청와대 참모진영과 내각을 구성하는 데 있어 작은 에러들이 누적됐고, 점수를 잃었다"며 "또한 경제위기 때문에 혼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바깥에서 보는 여당의 모습은 처참하다. 물론 당내 위기감도 상당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20%대를 왔다갔다하고 있으며 이에 뒤질세라 한나라당 지지율도 30%대에서 헤매고 있다.

역대 정권 1년차 지지도는 김영삼(YS) 59.1%, 김대중(DJ) 62.8%, 노무현 22.3% 등이었다.

한나라당은 집안싸움만 되풀이하면서 수적 우위에 걸맞은 정치력을 보여주지도 못했고 당연히 정국 주도권을 틀어쥐지도 못했다. 한나라당은 이명박-박근혜 양대계파로 분열돼있다. 양 계파는 여전히 '두고 보자'는 식으로 감정을 골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 그것도 부족해 '낮에는 친이, 밤에는 친박'을 하고 있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로 의원들 간 눈치보기가 극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한나라당은 172석을 앞세워 야당 앞에선 기세등등하지만 실제 이들 의석 수를 들여다보면 속 빈 강정이라는 비판이다.

또한, 당이 정국주도권을 잡지 못하면서 청와대의 입김에 휘둘려 여의도에 정치는 사라지고 일방통행만 난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 관계자는 "장관직을 좇는 당 지도부의 태도 때문에 야당과 대화가 어렵다"며 "여권 내에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대선 패배 1년 '제1 야당' 몸부림

리더십·정체성 혼란…巨與 독주 못 막아

와신상담(臥薪嘗膽)의 1년을 지내온 민주당은 19일이 더욱 참담하다.

대선 패배 1년의 성적표가 바닥이기 때문이다. 당 지지율은 10%대에서 정체돼 있고, 전통적 지지층까지 등을 돌리고 있다. 정체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지도부 리더십은 전혀 발휘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의석 수 부족 탓에 국회 내에서 거대 여당의 독주를 막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아직도 여당의 추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비판과 견제, 대안제시 등 야당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전략 부재 때문에 비판과 견제의 주도권을 민주노동당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평가다.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은 "의석수를 탓하는 건 이유가 안 된다. 민노당은 5석에 불과한 데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국민의 마음 속에 파고들었다"며 민주당의 '전략 부재'를 지적했다.

때문에 쇠고기 촛불시위와 쌀직불금 사태, 금융·경제 위기 등 정부 여당의 실정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지만 민주당은 반사이익을 챙기지 못했다.

민주당이 아직까지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했다는 것도 문제다. 정체성이 모호하니 지지층이 결집하지 않는 것이다. 중도세력의 절반 이상이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고 진보세력조차 30% 정도만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나타난다.

여기에 최근 당내 비주류 모임을 중심으로 '지도부 사퇴론' 등이 불거지며 집안싸움에 몰두하고 있는 것도 국민이 민주당에 등을 돌린 한 요인으로 지목됐다.

당 관계자는 18일 "지난 1995년에 창당된 새정치국민회의가 현재의 민주당보다 적은 53석의 정당으로 시작해 2년 만에 집권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며 "청와대에만 개편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당 지도부의 전면 개편을 통해 당의 모습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